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CNN Business: 올해 미 인플레이 수그러질 것인가?
- Bloomberg: 가격 올리는 미 기업들 비중,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 Bloomberg: 학자금 융자 재개로 미국인들 재정 압박 준비
-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최대 은행들, 자본 더 필요 - 임대 보호 사라져 저렴한 주택 고갈 위기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연준 관리, “SVB 폐쇄는 당국의 늦은 대응 탓”
- CNN Business: 크레딧 카드 연체료 8불로 줄 수 있다

#### [부동산]

- WSJ: 맨해튼 고급 부동산 시장, 뜨거워졌다
- CNBC: 주택 가격 다시 최고치... 고금리에 공급 압박 탓

#### [중국 경제]

- WSJ: 미중 디커플링, 그 자체 모멘텀 가지고 있다
- WSJ: 중국 “무역 재개 흐지부지 되는 중”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cs: 재택 근무를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
- WSJ: 소매업체 무료 배송 기준 더 까다로워... 배송비 급증 탓
- WSJ: AI 칩 혁명에 동참하는 도전업체들
- Bloomberg: 테슬라 “충전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지만 잠재 수익 커질 듯”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CNN Business: Will inflation come down this year? We're about to get a big clue

#### 올해 미 인플레이 수그러질 것인가?

-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조업 중단,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혼란 때문에 수년간 상승했던 석유, 식품 및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문에서 여전히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감소가 되지 않는 한 금리 목표치 2%가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그러나 많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 이익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인플레이의 거의 60%가 기업 이익 증가 때문이라는 것.

- 이번 주 수요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목요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다.
- 한편 금요일에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 블랙록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Share of US Small Firms Raising Prices Dips to Lowest Since 2021

#### 가격 올리는 미 기업들 비중,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 전미 자영 비즈니스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은 화요일 보고서에서 6월 판매 가격이 3개월 전에 비해 올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지만, 1년 전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완화되었으며, 수요일에 발표되는 수치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근본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버거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준의 2주 후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Americans Prepare for Tighter Budgets as Student Loan Payments Resume

#### 학자금 용자 재개로 미국인들 재정 압박 준비

- 올 가을 연방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시작될 경우 수백만명의 대출자에게 1) 새로운 부담이 되고 2) 미국 경제에 또다른 역풍 가능성이 높다.
- 바이든 행정부의 공화당과의 부채 상한성 합의 때문에 3년 상환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1천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은 대출자 2천 7백만명이 10월 1일 부터 상환을 해야한다.

#### Bloomberg 기사

###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최대 은행들, 자본 더 필요 - 임대 보호 사라져 저렴한 주택 고갈 위기

#### [미 최대 은행들, 자본 더 필요]

- 앞으로 은행의 안전 시스템을 위해 연준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형 은행은 추가로 2% 포인트의 자본을 보유하거나 위험가중자산 100달러당 2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임대 보호 사라져 저렴한 주택 고갈 위기]

- 수백 개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정부 보호가 끝나고 주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약 20만 채의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unit)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30년 세금 공제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만료된다는 것이다.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Silicon Valley Bank failed because of regulators' sluggishness, Fed's Mary Daly says 연준 관리, "SVB 폐쇄는 당국의 늦은 대응 탓"

-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실리콘 은행의 폐쇄는 규제 당국이 너무 늦장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자신의 관할 지역이지만 자신이 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다른 관리들이 결정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기 까지 너무 오래 지연되었다고 말했다.
- Mary Daly 총재는 어제 월요일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Why credit card late fees may drop to \$8 크레딧 카드 연체료 8불로 줄 수 있다

- 크레딧 카드는 기록적인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금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기한내에 최소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 하지만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제안한 관련 룰이 확정될 경우 이러한 연체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자들은 올해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 [부동산]

### WSJ: Manhattan Luxury Real-Estate Market Heats Up 맨해튼 고급 부동산 시장, 뜨거워졌다

- 뉴욕시의 고급 주택 시장이 상승세를 되찾고 있다. 이는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시장의 일부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신호

이다.

- 이러한 회복 조짐은 금리 상승과 경제 약화로 인해 고급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덕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뉴요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 2021년과 2022년의 호황기보다는 여전히 느리지만, 올해 상반기의 고급 주택 거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앞질렀다.
- 2년 이상 호황기를 누렸던 미국 주택 시장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의 부담으로 올해 침체되었다. 4월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WSJ 기사

### **CNBC: Home prices are hitting new highs again, as high rates put the squeeze on supply** 주택 가격 다시 최고치... 고금리에 공급 압박 탓

- Black Knight 조사에 따르면 5월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듯 주택 가격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모기지 이자율이 4% 미만을 적용받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판매를 꺼리면서 신규 매물은 1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다.

CNBC 기사

### **[중국 경제]**

### **WSJ: Despite Yellen, U.S.-China Decoupling Has Momentum of Its Own** 미중 디커플링, 그 자체 모멘텀 가지고 있다

-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옐런 장관이 미중 관계를 안정시킨다면 시장의 큰 위험 요소가 제거될 것이다. 그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의 부분적인 디커플링은 현재 강력한 모멘텀(Decoupling)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은 중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칩 부문에 계속해서 제한하면 비용 면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 3월 미국 전체 상품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동안 대만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6%로 약 두 배 증가했다.

- 중국과 미국 경제는 여전히 얽혀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관세, 향후 기술 부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미중 관계 악화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WSJ 기사

### WSJ: China's Reopening Trade Is Fizzling Out 중국 “무역 재개 흐지부지 되는 중”

-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변동이 없었다. 이는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 Refinitiv Lipper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주 연속 중국 주식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했다. 저번주 수요일 기준 약 4억 6천 5백만 불이 빠져 나가 작년 12월 이후 주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미국 투자자들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주목했다. 중국이 많은 기업의 주요 시장이자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의 핵심 성장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투자자들의 이러한 기대감은 사라졌다. 현재 중국 증시가 다른 주요 시장보다 훨씬 뒤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The fight over working from home goes global 재택 근무를 둘러싼 전 세계적 논쟁

- 구글은 업무 복귀를 의무화하며 출근 기록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일주일 중 최소 3일은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주 5일 근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 기업 상사들은 완전 원격 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인도 데이터 입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자의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자보다 18% , 아시아 대형 IT 기업의 직원들은 19% 낮았다.
- 하지만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는 원격 근무가 일반적이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무실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일본과 한국 직원들은 일주일의 4분의 1 이상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각각 3분의 1과 절반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한다.
- Stanford의 Nicholas Bloom 교수 논문에 따르면 재택 근무는 매일 평균 72분 시간 절약이 된다.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은 재택 근무는 급여 8% 인상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일부 근로자는 급여를 삭감할 의향이 있다.

## The Economics 기사

**WSJ: Retailers Set Higher Bars for Free Shipping as Delivery Costs Surge****소매업체 무료 배송 기준 더 까다로워... 배송비 급증 탓**

- Macy's, Saks Fifth Avenue, Neiman Marcus는 무료 배송을 위한 지출 기준을 높였다. 온라인 판매 수익률을 높이고 배송비 상승 부담의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 Narvar에 따르면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리테일러의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2019년 52불에서 올해 64불로 올랐다.
- 아마존은 작년 Prime 멤버십 가격을 연 119불에서 139불로 인상했다. 임금 상승이 운송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연방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은 2012년 1분기 553억 불에서 올해 1분기 2,726억 불로 증가했지만, 배송비 상승으로 무료 배송은 소매업체 수익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 전자 상거래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인 Shippo에 따르면 최근 설문 조사에서 판매자의 약 47%가 주문 총액의 10% 이상을 배송비로 지출한다고 답했다. 41%는 배송비 상승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WSJ 기사

**WSJ: The Next Challengers Joining Nvidia in the AI Chip Revolution****AI 칩 혁명에 동참하는 도전업체들**

- Advanced Micro Devices(AMD)와 Intel은 AI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불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AMD는 작년부턴 차세대 AI 칩을 계획했다. 6월에 공개된 이 칩은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을 구동하는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AMD가 AI 칩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AMD는 현재 Nvidia의 라이벌로 여겨지고 있다. Nvidia는 AI 칩 생산의 선두주자로 평가 받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1조 불 이상이다.

WSJ 기사

**Bloomberg: Tesla Bull Sees Lots of Sales, Little Profit From Charging Deals****테슬라 “충전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지만 잠재 수익 커질 듯”**

- 테슬라가 경쟁업체에 슈퍼 차저를 개방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수익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Ford, General 그리고 최소 4개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테슬라의 슈퍼 차저 네트워크를 공유받는 대가로 테슬라의 플러그 디자인을 채택하기로 발표했다.
- Baird의 애널리스트 Ben Kallo는 이러한 거래가 2030년까지 테슬라의 수익에는 최대 157억 불, 주당 순이익에는 45센트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그에 따르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8.75%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이용률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현재 테슬라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향후 매출은 52억 2천만 불, 주당 순이익은 15센트 기여할 것이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공급망 다양화와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톤다운  
몇주내 발표될 美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방중 성과' 시험대 전망**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대신 다양화(diversifying)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그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조치를 하는 것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그는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크링(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7/11/23, 1:05 PM

Constant Contact

Sent by office@kocham.org